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Travel

Calm and Clean Tohoku

맑고 시원한 천연의 자연, 도호쿠

■ 글· 사진/임동근 기자
협찬/동북관광추진기구, 아키타 현, 화인존, 인케인터글로브
한반도의 동쪽을 할처럼 감싸고 있는 일본은 땅의 모양이 길쭉하다. 남쪽으로부터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등 크게 4개의 섬이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다. 도호쿠(東北) 지방으로 불리는 혼슈의 동북부는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는 강원도를 닮은 풍경이 있는 곳이다. 짙푸른 나무가 울창창한 산들은 시원한 여름과 화사한 가을, 순백의 겨울을 선사한다.

일본 여행은 정형화되어 있는 듯하다. 화려한 대도시를 보고 싶다면 도쿄를, 파우더 설원에서 겨울을 꿈꾸는 스키어나 스노보더는 홋카이도를, 뜨끈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싶은 사람은 규슈를 방문하듯 일본 여행에는 어떤 등식이 사람들의 머리에 내재돼 있다. 이런 탓에 이들 유명 지역을 벗어난 곳들은 지명이 낯선 것은 물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유명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

일본에는 이들 지역과는 다른 매력을 품고 있으면서도 한국인들에게 회자(膾炙)되지 못한 곳들이 여럿 있다. 일본의 동북부인 도호쿠(東北) 지방도 한때 그런 곳이었다. 이렇다 할 대도시가 없고, 홋카이도 바로 아래 위치해 스키어의 관심에서 밀렸으며, 벳푸나 구로가와 온천의 유명세 탓에 일본 최고의 온천을 보유했음에도 찾는 이가 적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으로의 여행이 잦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도호쿠 지역은 꾸준히 인기를 높여 나가고 있다. 겨울 스키와 온천은 물론 그곳이 품은 산과 바다, 호수와 늪을 보기 위한 발걸음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호쿠 지방은 일본 혼슈 동북부의 아오모리(靑森),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야마가타(山形), 후쿠시마(福島) 등 6현을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지도를 펼쳐놓고 도호쿠의 크기를 가늠해보면 일본 전체의 6분의 1, 혼슈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도에는 거대한 산지와 호수, 삼면을 감싼 바다, 헤아릴 수 없는 스키장과 온천 등 일본 여행의 진면목을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도호쿠는 넓다. 아오모리의 북단인 오마자키(大間崎)에서 후쿠시마의 시라카와(白川)까지의 도로를 최단거리로 이어보면 거리가 서울-부산(456km)보다 먼 618km에 이른다. 더구나 구불구불한 해안도로와 산간도로가 많아 느릿느릿 거북이 운행을 해야 하는 곳이 부지기수다. 시간이 아주 많다면 모르겠지만 한 번에 여행하기에는 도무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도호쿠 여행은 한국과의 직항 노선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여정을 꾸리는 것이 좋다.

초록빛 산에 둘러싸인 비취색 호수와 늪

도호쿠 여행의 진정한 매력은 여정에 있다. 거대한 산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동해안과 태평양을 바라보는 해안선이 구불거리는 이런 매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역시 자동차가 제격이다. 어느 비탈진 산길이나 해안도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주변 풍경이 질릴 때까지 마음껏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사의 패키지로 방문했다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할 일이다.

도호쿠에는 일본에서 가장 깊은 아키타의 다자와(田澤) 호수, 최고의 깨끗함을 자랑하는 후쿠시마의 이나와시로(猪苗代) 호수, 감청색의 호수 물빛이 아름다운 아오모리와 아키타의 경계에 있는 도와다(十和田) 호수 등 일본을 대표하는 호수들이 여럿 있다.

초록의 삼나무가 뿅뿅하게 들어선 고원에 위치한 다자와 호수(수심 423m)는 자전거로 돌아보는 것이 제격이다.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호수를 빙 두른 도로를 달리면 상쾌한 공기가 폐를 정화

시키고, 노도 변에 늘어선 날렵한 삼나무와 호수가 아침 햇살 속에서 아름다운 빛과 어둠의 실루엣을 연출하는 광경을 감상할 수 있다.

호수 서쪽 연안으로 향하면 맑고 투명한 푸른빛의 호수를 배경으로 신사가 하나 있고, 인근에는 황금빛 소녀상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 다자와 호수의 물로 세수를 하다 욕심이 지나쳐 괴물이 되자 호수에 몸을 던져 용으로 부활했다는 소녀 '다츠코'의 전설을 담은 황금상이다.

호수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바닥이 드러나는 투명한 호수를 바라볼 수 있다. 먹이를 던져주면 손바닥만 한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이 끓는 것처럼 파닥거린다. 여행객들은 발목까지 물이 찰랑거리는 호수에 들어가 물고기들과 물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후쿠시마의 중앙 분지에 있는 이나와시로 호수는 바다처럼 넓다. 둘레 49km의 이 호수는 일본에서 4번째로 큰 곳으로 호수변에는 진노랑의 모래사장이 이어지고, 잔잔한 파도가 끊임없이 호반을 핏는다. 맑은 날 호수는 주변의 반다이 산과 하늘과 구름을 고스란히 수면에 담아낸다. '하늘의 거울 같은 호수'라는 뜻의 '천경호(天鏡湖)'라는 별칭이 딱 어울린다.

이나와시로 호수에서는 봄에 초록빛 자연과 야생 조류를 만날 수 있고, 여름에는 캠핑을 하며 카약, 오리배, 수영 등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또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화려한 빛으로 주변 산과 수면을 물들이고, 겨울에는 하얀 백조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북쪽의 반다이 산 너머에는 오색빛깔 물빛을 뿜내는 고시키(五色) 늪이 있다. 고시키 늪은 1888년 반다이 산이 화산 폭발하면서 생성된 3000여 개의 호수 중 표고 800m 부근에 있는 약 40여 개의 호수를 통틀어 부르는 지명으로, 물빛과 주변 풍경의 변화에 따라 파랑, 초록, 빨강, 갈색, 에메랄드그린 등으로 보인다고 해서 현재의 이름이 붙었다. 관광객들은 늪 주변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산과 늪과 하늘이 빛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지른다.

아오모리와 아키타의 경계에 있는 도와다 호수는 유람선을 타고 호수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3층으로 설계된 관광 유람선은 천천히 운항을 시작하며 호수 한가운데로 향한다. 3층의 전망대에 서면 푸른 물과 짙푸른 산들이 스쳐가며 상쾌한 기분이 들게 한다.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뿌리를 내린 나무들과 호수 중간 중간에 자리한 작은 바위섬들이 눈길을 끌고, 시원한 바람은 주변을 두른 숲의 푸른 향기를 실어와 후각을 자극한다.

싱그러운 초록빛 계곡 속의 트레킹

도와다 호수의 '네노구치(子ノ口)'는 거대한 호수의 물이 밖으로 흘러 나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곳을 통과한 물줄기는 빠르고 날렵하게 하류를 향해가며 오이라세(奥入瀬) 계류를 이룬다. 그리고 이 계곡을 따라 일본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14km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물줄기는 계곡의 폭과 경사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세차게 흐르다가 잔잔한 호수처럼 느려지기도 하고, 때론 폭 20m, 낙차 7m 규모의 폭포를 이루며 방문객들에게 장관을 선사한다. 관광객들은 계곡 하류의 츠타 온천이나 오이라세 계류 그랜드 호텔에 여장을 풀고 산책길을 거닐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계곡의 상류나 중류, 하류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트레킹에 나선다.

산책로는 계곡을 따라 구불거리며 이어져 있다. 너도밤나무, 단풍나무, 졸참나무 등의 줄기와 나뭇잎이 뽀뽀하게 자리를 차지한 산책로는 때론 폭신한 흙길이 되기도 하고, 때론 깔끔한 나무 데크가 되고, 때론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되기도 한다.

맑은 물이 세차게 흐르는 계곡과 절벽을 떨어져 내리는 작은 폭포들, 산새와 오리, 원시림 등을 관찰하며 천천히 초록빛 싱그러운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이마와 뒷덜미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지만 계곡을 지나는 바람이 이내 땀을 식혀줘 관광객들은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도와다 호수 남쪽의 아키타 현과 이와테 현의 경계에 있는 하치만타이(八幡平)도 트레킹 코스로는 그만이다. 고원에 형성된 화산대로 주변의 산들이 완만하고 평평하게 이어진 이곳에는 키 작은 관목과 진초록의 숲, 호수들이 있다. 정상 부근의 오누마 연못에서는 그림처럼 예쁜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전망대에서는 거대한 산들이 이룬 광활하고 탁 트인 자연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전망대에서 정상으로 향하는 산책길은 전망이 좋아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든다. 산책길을 오르면 푸른 소나무와 갈색 너도밤나무가 바둑판처럼 가지런하게 반복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관목 사이의 나무들이 하얗고 앙상한 가지와 줄기를 드러내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일본에서 맛닥뜨린 다도해의 절경

섬나라 일본에서 바다와 섬은 특별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 여행을 다녀온 여행객 중 실제 바다의 풍경을 제대로 보고 온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도호쿠를 여행한다면 태평양을 바라보는 동부의 해안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수려한 풍광의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아오모리 북동부에 커다란 돌도끼

모양으로 돌출한 시모키타(下北) 반도는 전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드라이브를 즐기기가 좋다. 혼슈 북동쪽 끝에 위치해 일본인들도 좀체 찾기 어려운 곳이지만 이곳에는 일본인이 죽으면 간다는 오소레산(恐山)이 있고, 북쪽 끝의 오마(大間)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참치가 잡힌다.

편도 1차선의 해안도로는 시모키타 반도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도록 조성돼 있다.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깔끔해 보이는 낮은 지붕의 집과 파도를 가르는 방파제 뒤로 끝없이 넓은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나무들은 전봇대만큼, 버스만큼 북쪽으로 갈수록 키가 작아진다. 낮은 산과 들판에 우뚝 선 흰색 풍력발전기가 천천히 날개를 움직이며 바람을 가르는 풍경도 아름답게 다가온다.

이와테 현으로 내려오면 태평양을 따라 180km에 걸쳐 이어진 리쿠츠 해안이 아름다운 풍경을 전한다. 리쿠츠 해안 중간의 미야코(宮古)를 경계로 북부는 육지의 용기와 파도의 침식으로 형성된 절벽과 암초가 있고, 남부는 1만 년 전 해면 상승으로 골짜기가 침강한 리아스식 해안이다.

리쿠츠 해안 중 이와테 현 동부 해안 중간쯤의 기타야마자키(北山崎)는 '바다의 알프스'라 불리는 곳으로 높이 200m의 해안절벽이 8km에 걸쳐 뻗어 있는 해안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에서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절벽 아래가 까마득해 보이지만 수백만 년 동안 태평양에서 밀려온 파도가 해안을 침식하며 조각한 촛대처럼 뾰족한 바위섬, 코끼리 모양의 바위 등의 풍경은 장엄하게 느껴진다.

검푸른 태평양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하며 남쪽으로 1시간을 가면 유람선에 올라 바다와 섬의 풍경을 돌아볼 수 있는 미야코 시의 조도가하마(浄土ヶ浜)에 도착한다. 갈매기 무리가 2층의 유람선을 따라다니며 어지러이 날갯짓하는 40여 분간 관광객들은 유람선에 앉아 주변의 경치를 감상한다. 관광객들은 흰색과 회색빛의 뾰족한 바위와 둥근 바위가 장식한 해안선과 띄엄띄엄 나타나는 해안 동굴, 다채로운 모습의 바위섬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미야기 현 센다이(仙臺) 북동쪽의 마츠시마(松島)는 '일본의 3대 절경'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2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들이 바다를 아기자기하게 수놓고 있다. 관광객들은 마츠시마를 감상하기 위해 오타카모리, 다문잔 등의 전망대를 주로 찾는다. 그곳에서는 아침에 빨갛게 수를 놓으며 떠오르는 태양과 섬들이 이룬 절경이 내려다보인다.

Hot Spring in the Woods
 비경 속에서 찾은 완벽한 휴식 공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은 푸른 산이 숨을 멎게 할 듯한 곳이다. '푸른 숲' 을 뜻하는 아오모리(青森)의 지명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선을 틀리는 곳이다 시원스레 펼쳐진 눈밭과 초록색 싱그러운 산들이 마음속까지 신선한 느낌을 전한다. 초록빛 자연 속에 감춰진 그곳에는 독특한 빛깔과 향취, 뜨거움으로 몸과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특별한 온천들이 숨어 있다.



Japanese Style Temple

신선이 머물다간 풍경의 사찰

불교가 생겨난 곳은 인도 한곳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본의 사찰도 그렇다. 절의 형태나 건물의 모습이 그렇고, 불상의 얼굴도 한국이나 중국과 다르다. 그러나 사찰을 방문하는 이들의 마음은 비슷한 것 같다. 산문을 들어서 부처 앞에서 두 손을 합장하고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는 중생들의 모습에는 해탈과 소망을 향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



Looking for Samurai

사무라이의 흔적, 가쿠노다테와 우에스기

일본 봉건시대의 무사를 일컫는 '사무라이'. 이시카와(石川) 현의 가나자와 시, 가코시마 현의 차란 등 일본 곳곳에는 과거 일본 무사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장소들이 많다. 야마가타 현의 우에스기 성지와 아키타 현의 가쿠노다테는 사무라이의 옛 영화(榮華)를 살펴보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흥미로운 곳들이다.



Information Northeast of JAPAN

도호쿠 지방은 도쿄나 오사카처럼 화려하지 않고, 규슈의 온천지대처럼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지 않는다. 도호쿠 지방의 매력은 깨끗한 공기와 초록빛 자연, 현대인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씻어주는 분위기에 있다. 맑은 자연이 숨 쉬는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곳에는 여유로움과 자유, 싱그러움과 풋풋함이 넘치기 때문이다.

교통편 인천국제공항과 직항으로 연결된 도시는 아오모리, 아키타, 센다이, 후쿠시마 등 4곳이다. 대한항공이 아오모리 수·금·일, 아키타는 월·목·토 주 3편씩 운항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센다이를 매일 운항한다. 또 후쿠시마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이 매주 월·수·토 주 3편 운항하고 있다.

운항 도시	항공사	운항 요일	출발편 출도착 시간	귀국편 출도착 시간
아오모리	대한항공	수, 금, 일	09:25/11:45	12:55/15:40
아키타	대한항공	월, 목, 토	09:55/12:10	13:10/15:40
센다이	아시아나항공	매일	10:45/12:55	13:30/16:00
후쿠시마	아시아나항공	월, 수, 토	09:55/11:20	12:20/15:00

현지 교통 기차, 버스, 렌터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도호쿠를 여행할 수 있다. 일본의 차선은 한국과 반대지만 운전이 자신 있다면,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호쿠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여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렌탈 비용은 예를 들어 도요타 렌터카의 소형차는 24시간이 6825엔(차종: 비츠, 파소)/7875엔(차종: 베르타, 라크티스, 이스트, 시엔타), 이후 1일당 5775엔/6300엔이며, 중형의 경우 24시간이 1만1550엔(차종: 알리온, 프리미오)/1만4700엔(마크X, 캠리), 이후 1일당 9450엔/1만1550엔 등이다.

환율, 전압, 기후 최근 환율이 많이 올라 살 때 환율이 100엔에 1000원을 넘나든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환율은 20% 이상이 올라 일본 여행에는 좋지 않은 시기이다. 전압은 한국과 달리 100V를 사용하며, 전기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납작한 모양의 별도 콘센트가 필요하다. 도호쿠 지방은 서울보다 날씨가 서늘한 편이다. 산간 지방과 평지에서서의 기온 차가 크므로 한여름 여행이라면 저녁에 입을 가벼운 긴팔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관련 사이트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JNTO)

www.welcometojapan.or.kr

북도호쿠 관광청 한국사무소

www.beautifuljapan.or.kr

미야기 현 한국사무소

www.miyagi.or.kr, 02-725-3978

야마가타 현 서울사무소

www.yamagatakanko.com/korean, 02-725-9074

후쿠시마 현 한국국내상담창구

<http://fukushima.japanpr.org/>, 02-737-1122

아오모리 현

<http://apti.net.pref.aomori.jp>

아키타 현 한국 코디네이터 사무소

www.akita.or.kr 02-3473-5822

이와테 현

www.iwatetabi-c.jp



아오모리 현



와키노사와(脇野澤) 원숭이 공원 ▶ 시

모키타 반도의 서남쪽 끝부분에 위치한 곳으로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일본 원숭이를 만날 수 있다. 1964년에 처음 발견됐을 당시 13마리였던 원숭이들을 보호해 온 곳으로 현재 시모키타 반도에는 1700마리의 일본 원숭이가 서식하고 있다. 원숭이 공원에서는 야생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야생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민가 습격 등의 문제를 일으킨 원숭이들을 별도로 보호하는 시설을 일반에 개방했다.

호쿠사이 시장 ▶ 시모키타 반도의 중심 도시인 무쓰(陸奥) 시에 있는 종합도매시장으로 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 들를 만하다. 각종 건어물을 비롯해 절임류, 아오모리 사과를 이용한 과자와 빵, 케이크 등을 구입할 수 있다. 2층에서는 어종이 풍부한 지역 특산물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요코하마마치(横浜町) ▶ 시모키타 반도로 향하는 도중의 해안에서 만날 수 있는 넓은 평지로 매년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유채꽃이 화사하게 꽃을 피운다. 푸른 바다와 초록 들판, 노란 유채꽃이 어우러져 예쁜 풍경을 선사하고, 낮은 언덕 위에서는 하얀색의 풍력발전기가 돌며 색다른 분위기를 전한다.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

타치 네푸타 전시관 ▶ 아오모리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인 '네푸타'의 하나인 '타치 네푸타'는 아오모리 시 서쪽의 고쇼가와라(午所川原) 시에서 매년 8월 4~8일에 열리는 축제이다. 타치 네푸타 전시관은 전통 축제를 홍보하는 관광지로 축제 때 사용되던 높이 20m 이상의 거대한 수레들이 전시되어 있다. 강인한 인상의 무사와 험상궂은 표정의 괴물, 요염한 미녀 등의 수레는 전시관에서 불을 밝히며 마쓰리의 화려함을 체험하게 한다. 전시관에서는 마쓰리의 영상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축제에서 사용하는 수레 제작 과정도 공개한다.

개관 시간 09:00~21:00 입장료 어른 600엔/학생 450엔, 어린이 250엔 문의 0173-38-6226, www.tachineputa.jp

이와테 현

이와야마(岩山) 칠예 미술관 ▶ '옷의 나라' 일본에서 20년 동안 활동하며 일본의 가장 위대한 칠기 예술가로 손꼽히는 전용복(56) 씨가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이다. 전 관장은 20세에 옷나무의 세계에 입문, 1988년 도쿄의 메구로아 서원으로부터 옷나무 예술작품 5000점의 수복과 작품 제작을 의뢰받아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작품 활동을 위한 장소로 물과 공기가 깨끗하고 양질의 옷나무가 생산되는 이곳으로 이동했다. 미술관에는 전 관장의 대표작으로 세계 최대의 옷화인 '이와테의 영혼'(2.42x18m)을 비롯한 다양한 옷칠 공예 작품이 전시돼 있다. 국내에서도 접하지 못한 진귀한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개관 시간 10:00~17:00(매주 수요일과 동절기인 12월 1일~3월 31일 휴관) 문의 019-624-8990, www.57art.com

쿠지(久慈) 호박 박물관 ▶ 일본 최대의 호박 산지에 들어선 일본 유일의 호박 전문 박물관으로 주변은 싱그러운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 지역 호박은 보석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최근 벌레가 들어있는 호박이 많이 발견되며 곤충 화석의 DNA 추출 등 고생물 연구에도 이용되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쿠지 지방 및 세계의 호박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호박 원석과 예술작품, 보석 가공품 등 아름다운 호박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또 공방에서 호박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구경하고, 다양한 호박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개관 시간 09:00~17:00 입장료 성인500엔/어린이 200엔 문의 0194-59-3831, www.kuji.co.jp

고이와이(小岩井) 농장 ▶ 아름다운 이와테 산의 기슭에 펼쳐진,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유일의 민간 운영 종합 목장이다. 유유히 풀을 뜯는 양들을 보면서 한가롭게 산책을 즐기고, 잔디밭에 누워 낮잠을 즐기기에 좋다. 이곳에서는 승마와 소젖 짜기 체험을 할 수 있고, 양들을 만져볼 수 있으며, 관광 마차를 타고 농장을 돌아보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우유, 치즈 등 품질이 우수한 유제품과 아이스크림, 케이크, 빵도 판매한다. www.koiwai.co.jp, 019-692-3115

아키타 현

야마노하치미쓰야(山のハチミツ屋) ▶ 아키타 현 센보쿠의 도로변에 위치한 전문 벌꿀 제품 판매

점이다. 벌꿀,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벌꿀 과일 식초, 화장품, 아이스크림 등 벌꿀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판매되고 있다. 벌꿀 캐릭터 상품과 인형도 판매한다. 판매점 앞에는 빨간색 2층 버스가 놓여 있는데 그곳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를 맛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 벌꿀을 이용한 각종 빵과 과자를 맛볼 수 있는 카페도 상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0120-038-318, www.bee-skep.com

후쿠시마 현

기타카타(喜多方) 구라노사토(藏の里) 후쿠시마 현 북서부의 기타카타 시는 까만 지붕에 흰색 벽을 가진 오래된 창고가 2600여 개나 있어 '창고의 고장'이라 불린다. 기타카타는 곡창지대이자 도자기 산업이 발달해 창고가 자연스럽게 발달했던 곳으로, 더 이상 창고로 사용되지 않는 곳들은 현재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타카타 구라노사토는 창고 여러 개가 한데 모여 있는 곳으로 기타카타에 있는 각종 창고들의 사진을 전시하고 있는 창고 역사 전시장을 비롯해 미술관, 박물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음식

모리오카 완코 소바 ▶ 이와테 현 모리오카의 명물인 '완코소바'는 맛은 한국에서의 메밀국수와 비슷하지만 먹는 방법이 독특하다. 밥그릇 크기의 작은 그릇 안에 있는 적은 양의 면을 소스에 찍어 한입에 먹은 후 종업원을 부르면 면이 담긴 그릇을 계속 제공한다. 고객들은 한그릇 비울 때마다 숫자 세는 기계 장치를 누르면서 먹은 양을 확인한다. 배가 부르면 그릇의 뚜껑을 덮으면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15~20그릇은 거뜬하게 먹을 수 있다. 이와테 여행 중 한 번쯤 꼭 해볼 만한 즐거운 경험이다.

기타카타 라면 ▶ 일본에서는 삿포로의 미소 라면, 하카타의 돈코츠 라면, 기타카타의 쇼유 라면을 '일본의 3대 라면'으로 꼽는다. 후쿠시마 현의 기타카타 라면은 신선한 야채와 달걀, 돼지뼈, 멸치, 해산물, 숙성된 간장과 된장 등을 우려낸 국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담백하며 감칠맛이 난다. 그러나 기타카타 라면 특유의 냄새가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소 헛바닥 슛불구이 ▶ 미야기 현 센다이의 소 헛바닥 요리로 유명하다. 적당한 크기로 얇게 자른 소 헛바닥을 소금 양념을 한 후 구워낸 것으로 '규탕'이라고 불린다. 쫄면이 많고 부드러우면서 고소한 맛이 입 안 전체에서 느껴진다.

[▲ top](#)